

Community News



사랑의 손길 - 송파구 독거 어르신 죽배달 사업



복지사역팀에서는 송파구(거여, 마천, 오금) 일대 독거 어르신들에게 지난 6월부터 영양죽을 나누어 드리고 있다. 80세 전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중증 어르신 50여분에게 월요일,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18명(2인1조)의 봉사자들이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직접 영양죽을 배달해 드리며 어르신들을 만

난다. 죽(송파 자활센터에서 만들며 비용은 주님의 교회가 담당)배달 시간은 오후 3시인데 어르신들과 직접 대화하며 손을 잡고 전달을 해드려 너무 좋다고 한다. 봉사자 중에는 70세 이상의 장로와 집사, 자매, 방학 중에 봉사하는 대학생, 근무 중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분들도 있다. 또한 최근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도 친구와 함께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번 사업은 복지사역팀에서 하는 사업 중 송파구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외무사업이라고 한다. 특히 거여3단지 노인정으로 배달된 죽을 다섯 구역으로 나누어 자동차로 배달하는데 골목이 좁아 힘든 점도 있다. 3일 만에 배달을 가서 어르신이 하늘 나라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눈시울을 적시며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라고 기도를 드린 적도 있다. 지하 열악한 방에서 홀로 외로이 계시는 어르신들은 배달 시간이 되면 봉사자들을 기다리며 같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 '이곳이 천국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때도 있다. 죽과 더불어 조그마한 생필품도 매월 지급해드린다고 한다. 조그마한 죽 한 그릇이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 같아 기쁨이 넘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 배려하고 주님의 은혜를 항상 나누는 그날까지 오늘도 봉사자 모두는 맘을 홀리며 죽 배달에 사랑을 전한다.

신형섭 안수집사

<여성교회 농촌교회 방문기>

나전중앙교회를 다녀와서



다고 한다.

그 때 목사님을 어렵게 했던

지난 7월 7일, 제1여성교회를 중심으로 한 농어촌교회지원 탐방팀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나전중앙교회(이주형 목사)를 방문하였다. 나전중앙교회는 전형적인 시골마을 교회로 목사님이 손수 돌을 깨고 나무를 다듬고, 화벽을 칠하고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완성되었다고 한다.

강원도 정선은 우리나라에서 전당포가 가장 많은 곳. 이유인즉 도박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자들이 좋은 담보물이 되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도박의 성' 강원랜드 카지노 건물이 이 고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반대운동을 하다가 지역개발 지지자들로부터 순교당한 뻔! 하셨다고 회상하셨다. 지금도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채 노숙자가 되어 이곳을 헤매는 수가 예상 외로 늘고 있

마을 주민들에게 지금은 무슨 일인데 도와주는 맥가이버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 나전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교인수는 모두 14~15명이고 그마저도 거의 노인들이기에 노인사역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탐방팀은 농어촌 오지교회 사역자인 이곳 나전중앙교회가 잠실에 위치한 주님의교회와 똑같이 하나님나라를 위한 선교의 열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해간 물품과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특별히 주님의교회 의 명의 성도와 여자씨에서 기증해 주신 새 노트북, 찬송가 반주기, 후원금 200만원, 쌀20kg, 생필품 등이 나전중앙교회 자립을 위해 필요한 활력소 역할을 하게 되리라!

김운선 권사

정신학원 봉사자 수련회



정신학원 봉사자 수련회가 9월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예 배실에서 열렸다. 주님의교회 내에 있는 백여명의 정신여중고 학원 봉사자들이 2학기의 사역을 시작하며 함께 모여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중학교 팀은 봉사자 한 명이 학생 7~8명을 만나며 사영리와

인성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교생의 복음화 목표를 갖고 있고, 고등학교 팀은 봉사자 한 명이 1년동안 지속적으로 학생 4~5명을 만나며, 과중한 공부와 여러가지 고민을 함께 나누며 기도로 섬기고 있다.

이 번 수련회에는 박현동 목사(의정부침례대지전교회대표)의 "십대와 통하는 지도자가 통한다"와 이충욱 교장(정신여고)의 "학원 내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주님의 교회 박혜성 목사의 말씀기도회와 임경순 전도사(주님의교회 중등부), 유현애 전도사(부천침례대지전교회)의 센터학습이 진행되었다. 주님의교회 학원선교팀은 준비된 자료 2009년 2학기도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성탄절 칸타타를 함께 준비하며
임마누엘찬양대로 4부예배를 섬길
대원을 모집합니다!

예배&연습: 매주일12:00~16:30
문의: 이성규 집사(총무) 010.5503.5512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의교회 대예배실 강단 리모델링 디자인 공모전

* 채택되는 작품을 근거하여 금년 하반기 방학기간 동안 대예배실 강단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집기간	2009.9.30 오후 5시까지
제출처	교회사무실(1층) 참여자격 주님의교회 등록교인
설계자료제공	기준평면도, 주단면도, 강단전경사진 3매
디자인의 범위	강단부분의 (벽체, 바닥, 천정)
설계자료 제공장소	교회 사무실 (2009.9.14일~2009.9.20 오후 6시까지)

제출도서

- ① 작품 제안 설명서 A4사이즈 3매 이내
- ② 공사비의 개략 견적서 1부 (A4사이즈) * 벽, 바닥, 천정 구분하여 견적
- ③ A2 사이즈 판별 (액자없이 3매 이내)
- * 평면도 • 입면도 • 단면도 • 투시도 또는 스테디모형 • 마감자재제 샘플보드

[오늘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4

통 권 제 254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 2009년 9월 13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오늘! 주님의교회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교회를 섬길 항존직분자를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장로 5명, 안수집사 30명, 권사 30명을 선출하고자 한다. 오늘 투표 결과는 수

여부를 확인한다.

- ③선거인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없는 경우, 교구 목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 ④선거용 OMR 용지를 수령하여 기표소에서 장로 5명, 안수집사와 권사는 30명씩 기표한다.
- ⑤제한 인원 이상 기표하면 무효처리된다.
- ⑥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용 수정 싸인펜만을 사용한다.
- ⑦후보자 이름 옆에 있는 ○가 ●게 되도록 칠한다. (○, ●, X와 같은 표시는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하여 무효처리가 될 수 있다.)
- ⑧OMR 용지에 물이 묻으면 무효표가 될 수 있으므로 손에 물기를 제거하고 기표한다.
- ⑨다른 후보에 잘못 기표한 경우,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수정테이프(흰색)로 지운다. (X 표시 등은 기표한 것으로 인식 된다.)
- ⑩OMR 용지는 절대로 접지 말고 투표함에 넣는다.

우동윤 목사

요예배(16일) 중에 발표하며 1차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인원의 1.5배를 공고하여 다음 주일(20일)에 2차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시 유의사항>

- ①만 20세 이상, 등록한지 1년이 경과한 세례, 입교인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②정신여고 본관 1층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

2009. 9월 13일(토) 1차 투표결과표 (2009. 9. 13)

1. 본당과 주일학교(본당) 투표 결과표

2. 본당과 주일학교 투표 결과표

구분	후보자	표수	비고
본당	장로		
	안수집사		
	권사		
	총합		
	비율		
주일학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총합		
	비율		

득표순	이름	기표
1	홍길동	●

(OMR 용지 작성 예시)

10월 10일(토) 텐! 텐!(10월 10일) 우리 함께 걸어요!

제1회 전교인 걷기 대회가 한달 앞으로!

전 교인 걷기 대회 코스

구간:교회-양재천 영동5교
총거리:왕복6km

①초록관말대
②계이트로 경계강
③화정실
④반환점

주님의교회

반환점

대치교

영동5교

의 건강증진 및 친목 도모, 여자씨모임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가을철 전 교인 체육대회를 겸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이번 걷기 행사는 오전9시부터는 참가신청과 건강체크 등으로 시작하여 개회선언과 준비운동 후 걷기에 들어간다. 걷기를 마치면 11시30분에 본당에 입장하여 공연, 다문화가정 영상소개, 성금전달 그리고 행운권 추첨 순서를 갖고, 12시30분에 행사가 끝나면 여자씨별로 준비하여 점심식사와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된다. 걷기 코스로는 교회에서 양재천 영동5교를 반환점으로 하는 왕복 6km를 걸을 계획이다. 이번 걷기

를 통하여 돕는 다문화 가족은 우리나라에 찾아온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언어소통과 우리문화와의 차이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다. 특히 송파구 관내 다문화 가족과 우리교회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해 오고 있는 하남지역 다문화 가족 중, 열악한 형편에 처한 분들을 의뢰 받아 걷기참가 신청접수로 얻어진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 이상이며, 참가신청은 교구별로 여자씨 인도자를 통하여 하고, 그 외의 분들은 9월 27일 주일과 10월 4일 주일 본당 로비에서 그리고 미처 못하신 분들은 행사당일 운동장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걷기대회 준비위원회는 온 가족과 여자씨소그룹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행사진행과 행운권 추첨을 위한 상품 협찬도 구하는 중이다.

연락처: 010-5382-4769
김동익안수집사



준비팀 양재천 답사장면

<주요기사>

2 여자씨인도자 수련회

2 2009-2 양육과정

3 비전트림 캠프다

4 사랑의 손길 죽배달 사역

*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겨자목(木) 섬김이, 겨자채(菜) 돌봄이, 겨자씨 인도자와 함께 한 수련회



지난 달 8월 28일 금요일 저녁 부터 29일 토요일 낮까지 광림 세미나 하우스에서 겨자씨 인도자와 겨자채(菜) 돌봄이, 겨자목(木) 섬김이와 함께 1박2일의 수련회를 가졌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겨자씨 인도자, 겨자채 돌봄이, 겨자목 섬김이의 명칭이다. 2009년 상반기에 PD40(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통하여 형성된 소그룹을 마태복음 13장 31-32절에 나오는 성경말씀을 근거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herbs)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마 13:31-32).”

2009년 하반기의 새로운 겨자씨 모임을 비상을 꿈

꾸며 열린 겨자씨 리더 수련회에서 박원호 담임목사님은 특강을 통해 소그룹의 중요성과 특성에 대해 말씀하시며 주님의교회가 예배와 겨자씨 소그룹의 양날개로 균형있게 날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또한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는 말씀과 같이 겨자씨소그룹 모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소그룹원들간의 만남을 넘어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이어야함을 전하셨다. 둘째 날 아침 경건회는 담임목사님의 인도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각 기도제목마다 장로님들의 뜨거운 기도로 수련회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두 번째 특강은 ‘정경, 쿨선’ 저자인 조선영작가를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통찰력과 많은 도전이 되었다. 이전에 없었던 귀한 시간을 보내며 모든 인도자들은 곧 만나게 될 겨자씨들을 품을 생각에 마음이 이미 겨자씨모임에 가 있는 듯 했다.

한층 더 새로워지고 달라진 겨자씨 모임을 통하여 더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으면 한다. 더 높아진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영혼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가을이 되길 기도한다.

소그룹팀

오늘 뜻을 모아 씨를 뿌립니다

타오르는 풀무불 불속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상잔의 불구덩이 속에서
이 땅을 일으켜 세워주신 내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향기로운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너희 탓이다, 너희 탓이다
우상숭배의 땅으로 만든 너희 죄업이다
이젠 어엿이 두 나라, 힘센 나라 탓이다
우리는 귀막고 눈감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조금 더 배불리 먹고 교만 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성령의 불길로 이 죄를 맑았게 씻어주소서

그러하여, 우리 모두
주님과 한마음 되어 내 형제의 고통을 느끼기 원합니다
오랜 허기와 놀림으로 소망 잃은 저 눈길을 보기 원합니다
주리고 파리하여 결핵으로 신음하는 여린 숨결을 듣기 원합니다
내장을 움켜쥐고 피를 토하는 저 소리에 민감하게 하소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세우시는 명령을 받게 하옵소서

내 형제를 향한 애통과 공휼을 잃었습니다, 수치심도 잃었습니다
오늘 비통한 무릎들이 엎드려 자복하오니 고쳐 주소서
비천한 자를 높이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복된 땅이 주님의 위엄을 잊기 전, 말씀의 빛이 비쳐들게 하소서
향기로운 피 돌게 하는 이 귀한 결연! 어린 한 생명 생명
빛으로 가득 채우사, 어둠 몰아내는 등불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이희숙 권사

*이 시는 북한결핵어린이돕기 결연식(8월 16일 주일 예배)을 기념하여 씌어진 글입니다



2009 하반기 양육과정 · 문화강좌

신앙강좌	강사	연락처	요일 / 시간	장소
성경쓰기	정영숙	010.3210.2435	목 13:30-15:30	1층 3집회실
즐거운 찬양사역(CCM)	김주원	010.4105.8748	목 10:30-12:00	5층 찬양대실
쉽고 재미있는 교회사	이강찬	010.2243.4420	목 10:30-12:00	3층 초등부실
쉽고 재미있는 조직신학	신화식	010.4446.5079	목 10:30-12:00	3층 소모임실
성경통독(종합)학교	공광승	010.4571.8707	수 10:30-12:00	4층 대회의실
일본어 성경읽기	신영숙	011.205.4181	금 10:30-12:00	4층 소회의실
영어성경공부 (level 1)	나현수	010.2266.6453	목 10:30-11:30	4층 소회의실
영어성경공부 (level 2)			목 11:00-12:30	
그리스도인의 7가지 습관	정요섭	010.8799.9106	화 15:00-17:00	4층 소회의실
영성훈련	최대형 배현성	010.3814.1353	월 18:30-20:00	1층 소예배실
사람을 세우는 코칭	정요섭	010.8799.9106	목 10:00-12:00	4층 대회의실

문화강좌	강사	연락처	요일 / 시간	장소
주님의교회 데코	함혜련	011.352.0100	수 15:00	4층 소회의실
창조를 담은 사진학교	최재호	016.620.8279	주 13:30-15:00	5층 청년2실
은혜로운 먹그림	정남희	010.3611.5556	수 10:30-12:30	지하 소식당
말씀서예	정도일	010.3361.8811	주 13:30-15:00	지하 소식당
생활꽃이	최진옥	010.3351.1756	수 13:30-15:30	지하 소식당
아름드리 한국무용	배숙자	010.3685.7263	월 10:30-12:00	지하 유치부실
쉽고 재미있는 기초반주법	최영순	010.4757.1058	화 10:30-12:30	지하 유치부실
에바다 수화교실(기초)	최영숙	010.8476.7562	수 15:30-19:00	지하 중식당
에바다 수화교실(중급)			금 14:00-16:00	4층 소회의실
건강제조	백순기	011.271.7148	월 14:30-16:00	지하 유치부실
따사론 손 뜨개질	이문자	010.3000.0842	금 13:30-15:30	3층 소모임실
다량반 퀼트	최정원	010.5550.4066	목 10:00-12:00	3층 밀알실
사랑나눔의 풍선아트	송혜영	010.8701.2189	주 13:30-15:00	5층 2집회실

〈캄보디아 비전트립〉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 37:5)”

결국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시 한 번 알게 해준 비전 트립이었다.



2009 하기 캄보디아 비전 트립은 10대에서 60대까지 57명으로 구성된 대단위 팀으로 의료, 이미용, 수지침, 풍선아트, 셀사역 등, 여러 사역을 준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캄보디아로 향했다. 쉬지 않고 내리는 장대비 속에서 각 팀원들의 열심과 배려, 무엇보다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으로 모든 사역들이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또한, 청각 장애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 맑은 미소로 인하여 나의 편견이 깨어지고 새로운 소통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같이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고 계셨다.

천여 명의 현지인들에게 힘든 내색 없이 진료로 섬김 의료팀과 약국팀,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바쁜 손놀림에 분주한 이미용팀과 풍선아트, 비 사이를 뚫고 방문한 가정담임들,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 한 예배와 놀이, 사랑의 터치로 즐거웠던 셀사역팀 모두 기쁨과 은혜를 주고받는 시간들이었다. 병원과 예배 처소에서 만난 맑은 눈망울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 안에서 캄보디아의 비전을 꿈꾸는 청년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길 기도하며,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기를 기도한다.

캄보디아 사역, 60여명이 기거하는 아주 작은 방. 공간이 모자라 복도며, 문간이며 한치의 여유 공간 없이 생활하는 열악한 곳이다. ‘이곳에서 무슨 안락을 찾으랴’ 말할지 모르나, 그곳은 너무 비좁아, 수인들이 위장병, 피부병 등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의료, 이미용 사역을 하였고 새 장판을 깔아 주었다. 350여명의 교도인중 200여명이 우리와 함께 하였다. 한때의 실수를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그들에게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소자가 내 놓았던 보잘것 없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같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쓰임 받아 감사하고 즐거웠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결국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시 한 번 알게 해준 비전 트립이었다.

김중호집사



청년공동체 농촌봉사활동(7월 29일~8월 1일)을 다녀와서



주님 의교회 청년 공동체 농촌봉사활동(7월 29일~8월 1일)을 다녀와서

작년 2008년도에도 이곳 고요교회 여름사역을 왔었는데

어느덧 1년이 지나 같은 곳에서 같은 마을사람들을 만나 봉사를 하니 다시 기억 속 장소로 찾아온 것 같아 참 좋았다. 벽돌 나르기, 땅파기, 돌 고르기, 보도블럭 깔기, 시멘트 비올 맞추기, 화장실 고치기, 페인트칠 하기, 예배시간에 드럼치기, 발 마사지 등등... 하는 동안에는 이를 악물고 했지만 끝나고 나니 벌써 좋은 추억이 되어버린 것 같다.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일하며 거의 ‘전우체’를 느끼고 있었다. 일은 그 정도로 전투적으로 진행되었고 힘들었다. 일이 끝나고 취침 전 개울가로 가서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달빛을 조명 삼아 얼음같이 차가운 물속에서 먹을 감았던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경험들을 언제 다시 해볼 수 있을지... 돌아가면... 내년에도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기에 더 깊은 마음속 추억으로 남는다.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과 팔다리가 시간이 흘러 하얗게 되듯 내 기억 속의 감동은 기억에서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

리가 하나되어 남긴 사랑의 씨앗은 주민들 가슴에 작은 싹을 틔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아질 수 있기를... 18기 박인제 (몸뚱단: 몸으로 일하는 팀)

후발대로 참여하게 되어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은 아쉬움과 함께 고요리에 가게되었습니다. 놀이터 페인트칠로 섬기게 되었는데, 먼지가 가득했던 놀이기구들이 점점 예쁜 색색의 옷을 입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다.

작년에도 이곳에서 봉사를 했는데 작년보다 조금은 더 좋아진 환경과 마을을 여는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다. 철없는 도시의 여학생인 내가 이곳에 와서 이웃간의 정, 사랑을 알게 되고 나눔과 배움의 가치를 배웠다. 이곳 고요리는 마을 분들끼리 마을회관에 모여 휴식을 취하고 서로를 나누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따뜻한 분들에게 마을잔치를 대접해 드리는 것도 영광이다. 또한 우리 주님의교회 청년 지체들과의 만남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일하고, 격려하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봉사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또 가고 싶은 그런 곳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고요리에 영원히 충만하길 기도한다.

18기 최수지 (몸뚱단: 몸으로 일하는 팀)